

“백신 접종했는데”... ‘돌파감염’ 발생

백신 1,2차 접종 마친 70대 노인 코로나 확진 판정 5월 한달 325명 감염... 확진자 17% 감염경로 미궁

제주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A(982번)씨가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과 26일 각각 화이자 1·2차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24일 수차례에 걸쳐 가족인 964번과 975번과의 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

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2차 접종 후 30일이 지났으며 2주 간의 면역 형성 기간도 지났지만 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0일 7명(1024~1030번), 31일 9명(1031~1039)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받은 1029번은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직원과 접촉한 뒤 감염됐으며 1030번은 해외입국자로 파악됐다.

31일 확진 판정받은 8명 중 3명(1031·1035·1037)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1명(1039번)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나머지 확진자 접촉자 5명은 기존 확진자의 지인으로 수차례 만남과 식사 등이 이뤄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39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3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자가 이달들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확진자는 55명으로 나타났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특수한 소수 사례로 인해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항체 형성 속도는 면역력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낮은 비율이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디해기자 dhkang@ihalla.com

“재해복구공사가 오히려 원형 훼손” 참여환경연대 내도동 알작지 보호대책 마련 촉구

“육지와 접한 제주해안 난개발로 심한 몸살 앓아”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5호로 지정된 명소인 제주도 내도동 알작지해안이 재해복구과정에서 원형 모습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로 원형 상실과 자연재해가 엄습하고 있다”며 “개발 중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대는 “바다의 날을 맞아 제주의 바다는 안녕하지 못하다. 특히 육지와 접한 연안은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연안파괴가 재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알작지 해안 파괴 행위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도해안도로 완공 이후 해안 구간은 두번이나 강한 파도에 의해 도로의 일부가 붕괴됐다”며 “제주시는 알작지 해안에 재해복구공사를 벌이지만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해안은 다시 한번 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구공사를 한다해도



재해복구공사가 진행중인 제주도 내도동 알작지 해안.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파도의 힘을 막을 방법은 없다. 결국 복구하더라도 강한 파도가 올 때마다 해안은 파괴되고 다시 복구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대는 이어 “행정당국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을 대폭 전환해 사업을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등의 정책 대안환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도내 초중고 62개교 2/3 등교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따라 오는 11일까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일부 학교의 등교수업 인원이 축소 조정됐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전체 314개교(유치원 123개원, 초 113개교, 중 34개

교, 고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 가운데 249개교(유 123개원, 초 86개교, 중 25개교, 고 12개교, 특수 3개교)는 전체 학생 등교, 62개교(초 27개교, 중 17개교, 고 18개교)는 전교생의 2/3 등교수업, 중학교 3개교는 전교생의 1/3 등교수업이 이뤄졌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단계 격상과 연동된 새로운 등교수업 방안 적용에 따른 조정 결과다. 이같은 조치는 일단 오는 6월 11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개학 이후 제주지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부 학교가 부분·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제되는 등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됐지만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2/3 밀집도 기준이 적용된 학교는 과대학교 30여개였다.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의 명물 '자리돔' 손질 31일 서귀포시 보목동 포구에는 제주의 대표 어종으로 입맛을 돋우는 싱싱한 자리돔을 손질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 ‘아우성’

“전세버스 차령 연장 해주고
방역지침 기준 등 완화해달라”

제주도 “중앙부처 협조가 관건
도 역할만으론 한계 있어 답답”

사항 등을 관련 부처와 논의한 뒤 검토 결과를 지난 28일 도관광협회에 전달했다.

검토 결과를 보면 우선 도는 전세버스업 차령 연장에 대해 국회에서 전세버스 차령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검토 중에 있어 법제처 심의 후 공포 된 뒤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체 관광객 대상 음식점 등 방역지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앙부처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관광업계 종사자 우선 백신접종은 3분기 전 도민 예방접종 시행시기에 접점을 실시키로 하고 예방접종 대상별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여행업 공동 사무실 조성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유희공간 확보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검토하고, 관광기금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 영세관광 사업체가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현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방역이 강화된 데다, 최근 도내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개별과 단체 관광객 대상 일제간 양극화 문제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도와 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도관광협회 측은 지난달 18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의 지원 방안 등으로 전세버스업계 회생을 위한 준공영제 지원책 마련, 제주지역 전세버스 차령 연장 2년 연장, 단체관광객 대상 음식점 방역지침 완화, 관광업계 종사자 우선 백신접종, 여행업 공동사무실 공동운영 조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후 제주도는 건의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 모집

서귀포시가 본격적인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여름철을 맞아 하천 민간안전요원 44명을 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분야별 모집인원은 인명구

조요원 6명, 안전관리요원 38명이다. 지원신청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하고 수영에 능숙한 남·여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인명구조요원은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6월 4일까지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KT는 AI로 교통을 제어하는 C-ITS 서비스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로로 도시를 바꾸다

귀요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KTC-ITS의 긴급차량우선신호서비스는 빠른 이동이 필수적인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원차이송시간을 줄여줍니다. 제주도에서 긴급차량우선신호서비스를 3조 2천억 원에 대해 성공적으로 전국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0114

kt Enterprise